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0~3/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행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0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책세상

"수행자에게 가난은 간절함이다"



맑은 가난

선행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 하성미 기자



이 책의 저자인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 스님이 원고 교열을 보고 있다.

신심 북돋는 승가의 일상 담아
36년 동안 반조해 얻은 수행기
불가 언어 명료하게 담아 전달
바른 회향을 위한 스님의 발원

공부와 정진하는 수행자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 스님이 매주, 하루하루를 기록한 산문집을 펴냈다. 제목은 〈맑은 가난〉이다. 책 제목을 마주 대하면 으레 생각하는 수행자의 진부한 삶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는 생기롭고, 활력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것에 가난하다는 마음이 절실할수록 수행은 더욱 깊어진다"는 저자는 수행의 맑음과 수행자의 가난한 마음이 곧 정진과 수행이라고 이 책에서 역설한다. 저자가 책에서 들려주는 수행기는 대중과 불교대학 강의 등을 하며 부처님 말씀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야기들 모음이다. "부처님 제가 저의 역량껏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책의 저자인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 스님의 기도이다. 출가 후 30여 년이 지났을 무렵, 스님의 입에선 저절로 원력이 담긴 이 기도가 나왔다. 부처님을 향한 시은(施恩)은 남은 삶의 갈무리이자 화두가 됐다. 그러던 중 한 신문사에서 승가의 수행상과 분위기를 통해 신심을 북돋는 데 보탬이 되는 취지의 글을 청탁했다. 글을 연재한지 일 년, 하나 둘 글이 모여 책으로 탄생된 게 이번 책이다. 책 제목의 '가난' 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궁핍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님의 가난은 수행자의 간절함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에 임해 비우고 비워내는 작업이다. 저자는 '기한(飢寒)' 이라는 제목의 책 속 글에서 향엄 선사의 게송을 인용해 가난의 의미를 피력했다.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올해의 가난이야 말로 진정한 가난이다/지난해엔 바늘 꽂을 땅도 없었는데 올해엔 바늘마저 없노라" 가난하다는 인식마저도 철저히 떨쳐 내듯 오롯한 성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경지라고 저자는 가난을 설명했다.

간절함 마저 내려놓은 극한의 비움은 경지로 이끈다. 가난하고 간절한 수행자의 정진은 결실을 맺어 매화 보다 그윽한 깨달음의 향이 되고 가르침과 울림을 준다. 이것을 스님은 '맑은 가난' '청빈' 이라 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가난한 자신을 목도했을 때 비워내기를 위해 걸망을 지고 과감히 떠났다.

"출가 30년이 되던 해, 백장암 선원서 납자 스님들을 1년 동안 외호하는 소임을 봤습니다. 그 때 한 번은 통장을 확인했는데 4만원이 있더군요. 걸망 지고 다시 출가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었죠. 춥고 배고플 때일수록 정진하는 마음을 더욱 절실히 일으켜야 합니다."

책은 수행자들의 삶이 담겼다. 결과보다는 과정, 법문보다는 일상, 승가의 권위 보다는 솔직함이 더 많다. 글을 읽다보면 동질감을 일으킨다. 초월적인 신(神)처럼 다가갈 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 면모가 양념처럼 버무려져 읽는 동안 편안함을 선사한다. 강의하다 노래 한 곡조 뽑기도 하고 사찰 윷놀이, 첫사랑을 위한 연애 편지 내용도 들어있다. 글을 읽다보면 수행자의 일기를 살짝 꺼내보는 보는 심정이 된다. 완벽한 수행 성취로 불러일으켜진 경외심 보다는 소탈하고 편안하게 기술해둔 언어들이 정겨워 더욱 다가서게 만든다.

책은 '발심' '기도' '정진' '수행' 총 4편으로 나뉜다. 각 주제에 9개 혹은 14개로 나눠 소주제가 있고 총 44편의 산문이 있다. 글 제목은 반조(反照), 입적(入寂), 증곡(曾谷), 간경(看經), 안거(安居), 개산(開山), 시봉(侍奉) 등 불가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앞서 있고 첫 문단에서는 반드시 단어의 '풀이 및 정의' 가 있다. 소제목은 대부분 두 글자를 넘지 않아 명료한 글맛을 더해준다. '풀이 및 정의' 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진 않지만, 스님의 편안한 언어로 적어놓아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뒤를 따르는 스님의 일상은 의미를 더해 절묘하다.

저자 선행 스님은 20대 중반에 출가했다. 36년이 흐른 지금 공부의 갈무리로 '회향' 을 화두로 삼았다. 스님은 회향을 "자기가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다 함께 성불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통상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성취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고 책에 설명했다.

일의 마무리는 곧 완성이다. 회향을 모든 대중의 성불이라고 설명한 구절에서 굳건하고 고요한 산과 같은 스님의 의지도 엿보인다.

"이 책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취지가 승가의 수행상과 분위기를 보여주고 신심을 고취하는 것이기에 거듭해서 보고 또 검토했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달라는 기도는 모든 방면에서 발휘되길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수행 행보는 선 · 교 · 율 전체를 아우르는 탁마의 길이었다. 출가 전 속가 집의 내력이 남달라 유소년기에 〈천자문〉을 익혀 한자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강원 시절 도반들과 경전 독송할 땐 그 소리에 주목 받았고 강사진과 사중 스님들이 모처럼 공부하는 학인이 들어왔다며 기대를 하기까지 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별도로 〈화엄경〉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1992년에는 송광사 율원 개원 초창기에 율장과 함께 유식에 밝은 스님을 중심으로 〈성유식론〉을 논강했고, 1995년에는 통도사 방장 월하 스님의 부름을 받아 율원을 개원해 1년 동안 〈사분율〉과 함께 다양한 불교개론서를 공부해 불교 이론을 정립했다. 1996년~1999년에는 한문 경전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해 종단서 처음 설립한 은해사 삼장 경학원서 〈화엄경〉을 공부했다. 그 후에는 해인사, 법주사 강원에서 강사로 소임을 보았고 선서인 서장과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을 강의했다. 또 백양사와 선운사 강원 강주로 활동하며 〈화엄경〉 전문을 강의했고 학부와 대학서 사회복지학 전공 및 대만 유학도 다녀와 교학의 폭을 넓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원에서의 공부도 치열했다. 홀연히 선원을 찾아 공부했던 스님은 2019년 통도사 선원서 1년 간 정진까지 10여 차례 선원서 정진했고, 그 기간만 10여 년이다.

포교국장 소임을 위해 통도사에 왔을 때 몇몇 대중들은 "왜 강주 소임서 포교국장이 되셨느냐?"고 질문했다. 그 때 마다 스님은 '회향' 을 언급했다. 직책으로 보면 강주가 더 높을 수 있지만 경계를 넘어서 보면 대중에게 공부한 바를 전하기에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를 청하는 기자에게 첫 마디가 "수행의 회향을 위해 책을 발간했다"고 확고한 어투로 말했다. 회향을 향한 스님의 정성은 각고하다. 책 원고 마감을 위해 이틀 정도는 초저녁에 잠깐 잠을 자고 자정쯤 기상하는 것은 스님에게 정해진 일상이다. 글을 쓸 때 스님은 항상 만년필을 고집한다. 손으로 적고 정리하는 공책과 원고지를 다시 다듬어 글로 옮기고 퇴고를 거쳐 컴퓨터에 옮긴다. 그리고 또 다시 퇴고해 10번 정도 꼼꼼히 수정한다. 일일이 손으로 적기에 경전 강의 원고를 준비할 때는 어깨 통증이 심했다. 3년 전 BBS불교방송 라디오서 〈법화경〉을 강의할 땐 경구 전체를 요약 정리했다. 당시 원고지 3천매 분량이었고 펜이 12자루나 닳았다. 회향을 향한 '법열(法悅)' 의 힘이 저자를 책 출간으로 이끈 것 같다.

▲저자 선행 스님은?

충남 청양서 태어나 1985년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과 율원을 거쳐, 은해사 삼장 경학원을 1기로 졸업했다.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0여년 참선을 했고, 해인사, 법주사 강원의 강사를 거쳐 백양사, 선운사 강원의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는 영축총림 통도사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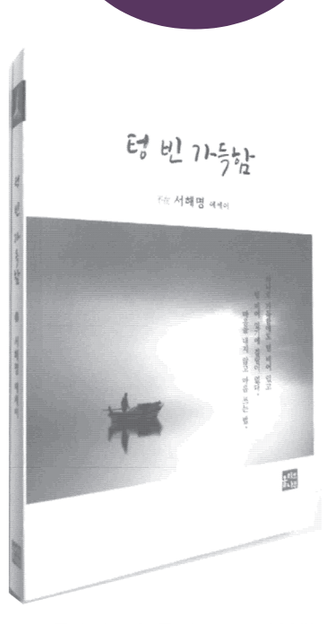
-"반조(反照)는 회광반조(回光返照)라 이른다. 곧 절박한 심정으로 몰입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본다는 의미다. 그간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겠다는 신조로 지내 왔는데, 어느덧 이력과 경륜을 말하게 되었다. 그동안 절묘하리만큼 때에 맞춰 정진하게 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청복(淸福) 곧 '맑고 한가한 복' 이었다 싶어 늘 감사한 마음이다."

-"외부의 환경, 곧 대상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반연(攀緣)이라 한다. 마치 소나무에 등나무가 의지해서 감싸고 있는 모습과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린 형상이겠다. 서로 공생하면서도 무리하게 감싸면 둘 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차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가 여러 정황이나 정진력에 걸맞게 신도를 제접해야지, 의지하고 의탁함이 지나치면 번뇌 망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맨 앞에서 절을 하는 만큼 여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처음 108배는 느리다 싶더니 이후에는 속담에 '꽁지에 불붙은 수탉처럼' 내리 절을 하셔서 젊은 내가 따라 하지 못해서야 되겠나 싶어 똑같이 보조를 맞췄다. 밤 9시부터 시작하여 108배할 때마다 옮겨 놓은 염주 30알이 한 으로 모두 채워졌다.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친 시간이 새벽 2시가 채 되지 않았다. 평소 웬만해서는 땀이 적은 편인데 그날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몸은 너무나 가볍고 개운한 느낌에 구름 위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회향 후 한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위로와 함께 여러 통의 편지까지 받았다."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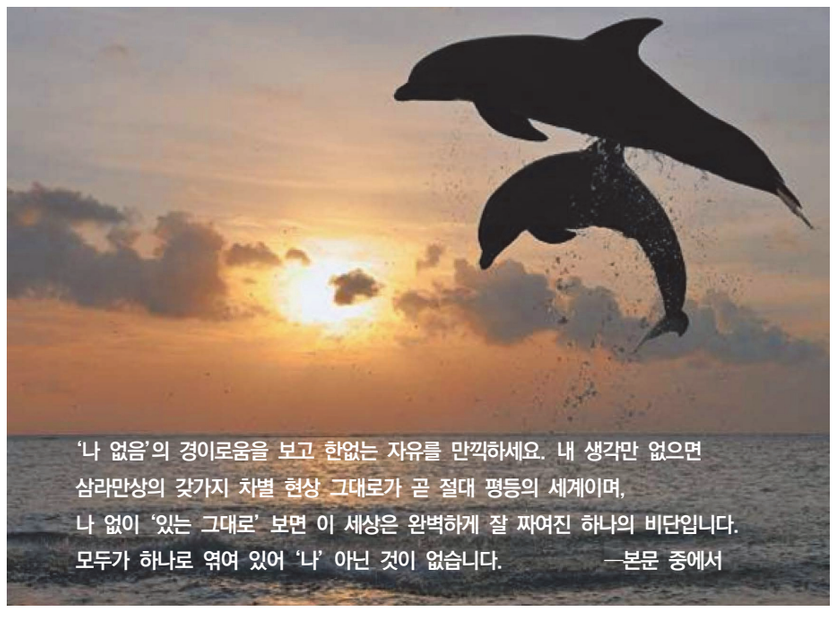
'나'라고 하는 몸과 맘의 허상을 떠나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무아지경의 황홀한 세상 이야기



텅 빈 가득함

不在 서해명 에세이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다.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 쓰는 법.





서해명 제1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나"라는 에고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의 이야기— 장엄하고 친밀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절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서해명 제2시집
'나 없음'의 경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해탈한 불교인'이 결혼하면 어떤 옥동자가 태어날까? 일찍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터를 닦은 서해명은 깨침의 종교인 불교를 그리스도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해탈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의 비유들이 갖는 참 의미를 발굴하고 확대 증폭하여 인간존재론의 21세기적 비경을 제시, 독자를 무아지경으로 끌어간다.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올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상담 및 강연 요청 ‖ 서해명 010-7770-2644